

북한산업의 현황과 관련 연구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최근 북한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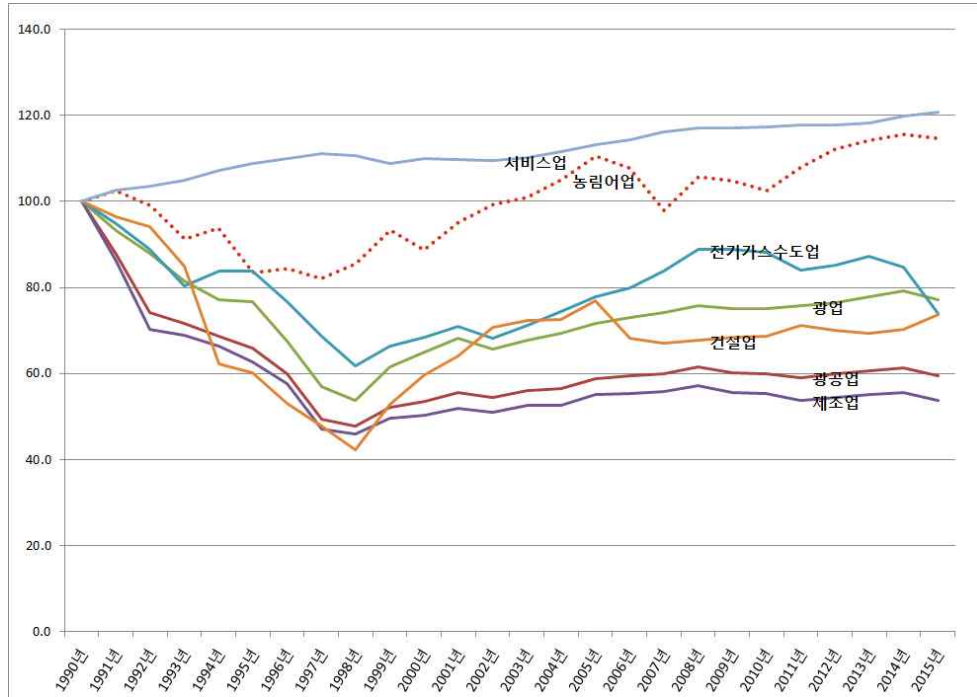
1. 개관

북한경제는 1998년을 바닥으로 전반적으로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유지되던 1980년대나 산업 전반이 몰락에 가까울 정도로 추락하던 1990년대와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산업도 이러한 북한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산업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북한 경제 및 산업의 이러한 회복 원인으로는 ▲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외무역의 확대 등 대외경제 관계의 개선, ▲ 1990년대의 극심한 후퇴 이후의 자연스러운 회복 ▲ 김일성 사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거의 전면적으로 작동이 중단되었던 경제관리시스템의 축소 이후 부분적인 작동 ▲ 기존 설비의 가동률 및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낭비요소의 감소 ▲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에 따른 국지적 효율성의 향상 ▲ 재정능력의 부분적인 회복에 따른 국가적인 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의 북한산업이 1990년대의 몰락 수준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회복 정도와 속도는 산업별로 매우 불균등하다.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및 건설업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제조업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조업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 회복은 불균등성은 일차적으로 에너지 및 군수 관련 산업 중심의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중반경까지 수력발전소 건설

[그림 1] 북한 주요 산업 동향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북한경제 통계(<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6. 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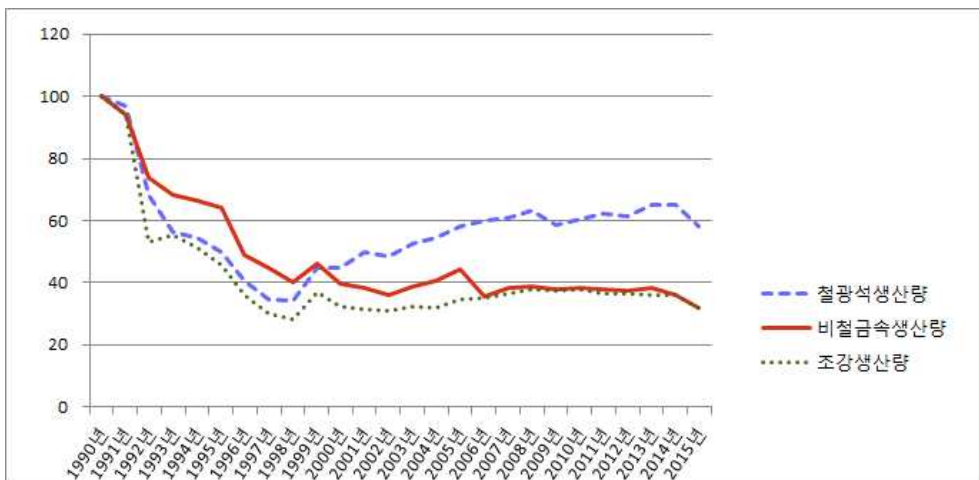
등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여타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설비의 확충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 제고 및 효율화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가용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군수 관련 산업의 회복을 위해 투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민수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에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산업의 기술적 특성도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느린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철강 등 장치산업은 투자 규모가 매우 커서 북한정부의 재원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설비 현대화 등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낙후된 기술수준을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는 개선시키기 어려웠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에 따른 회복수준의 차이는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석탄 생산량과 발전량은 1998년까지의 추락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회복과정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철광석 생산량과 조강 생산량은 추락과정은 유사하지만 이후 회복과정에서는 석탄 발전량과 같은 동반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석탄 생산량과 발전량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북한경제 통계(<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6. 12. 9).

<그림 3> 철광석 생산량과 조강 생산량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북한경제 통계(<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6. 12. 9).

2. 최근 북한산업의 특징

김정일 집권 이후, 혹은 대략 2010년 이후 북한산업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내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 공식부문의 생산력 회복 혹은 성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공식부문은 식품, 기계(농기계, 조선 등 포함), IT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 분야에서 실제로 생산력이 복구 내지는 확충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 공장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현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반적인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역량의 확대를 위한 투자는 경공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투자는 기존 설비의 현대화,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전환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략 2010년을 전후하여 석탄 가스화를 통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의 도입이나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활용, 기존 설비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중시정책, 그리고 CNC화 등이 결합되어서 기계부문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전기 등 그동안 성과가 많이 보도되던 설비뿐만 아니라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등 수송기계나 농기계 등에서도 성과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어린이식품공장 등의 설비 현대화가 수입 설비가 아닌 국산 설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북한의 산업 역량 확대에 이어질지,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의 공급에 그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넷째,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은 여전히 북한산업 회복 및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면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부문에서는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품목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종래 ICT 등 전적으로 수입·판매되던 기술제품 중 북한 내부에서 조립·생산하는 품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II. 관련 연구 과제 및 동향

북한경제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시장화 진전 상황 등과 함께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각 산업 및 이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실태 및 작동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요구 및 추진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각 산업은 국제경쟁 상황이나 남북경협에 대한 요구, 산업협력 추진 가능성 및 그 방향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산업별로 산업협력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및 경제통합을 대비한 산업별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 분업구조 구축방안 및 통일 한반도의 산업배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북한 기업 및 산업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DB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북한 주요 산업의 투자 및 생산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철강, 화학 등 산업별로 북한산업의 실태 분석, 발전 가능성,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북한경제 통계(<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6. 12. 9).